

농촌진흥청, 농작업 안전 행동 시연 무대 '농작업 런웨이' 개최

- 9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총 11팀 참가, 우수 사례 6팀 시상
- 농업인이 직접 농·작업복·안전 장비 착용 후 무대 올라 관심
- 농작업 안전 실천 문화 전파, 공감대 형성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인이 농작업 위험 상황별 안전 행동을 시연하는 '농작업 런웨이'를 국내 처음으로 9월 9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제2회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 부대행사로 치러졌으며, 농작업 안전 보호구 및 작업복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농촌에 거주 중인 농업인(비농업인 포함) 또는 농업인 단체 회원 등으로 꾸려진 남녀 혼성 11팀(총 55명)이 무대에 올라 안전 행동 공연(퍼포먼스)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이 직접 위험 요인별 작업복과 안전 장비를 선택해 착용한 후 농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요령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해 관람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농촌진흥청은 참가 팀 가운데 △안전성 및 기능성 △세련미 및 디자인 △현장 적합성 및 수용도 △무대연출 및 결속력(팀워크) △독창성 및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상 6팀(금상 1, 은상 2, 동상 3)을 선정, 시상했다.

금상은 고양시가 추구하는 미래 농업을 패션으로 표현해 현장 적합성·수용도, 세련미·디자인 안전성·기능성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청년농업인 팀 ‘고양파머스’가 안았다.

우수 사례는 향후 농업인 안전교육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응용하고 농작업 안전 실천을 전파하는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유혁란 과장은 “이번 런웨이 무대는 농업인 스스로가 안전을 실천하는 주체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기존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 방식과는 차별화된 참여형 교육으로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농작업 런웨이’ 운영 계획

담당 부서 <총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책임자	과 장	유혁란 (063-238-1860)
		담당자	전문경력관	김종진 (063-238-1890)
공동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상범 (063-238-2331)
		담당자	연구관	채혜선 (063-238-2366)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목적**

- 농작업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현장 공감대 확산

□ **추진내용**

- 일시: 2026. 9. 9.(수) 12:30~13:20(50분간)
- 장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규모: 11팀, 55명(남 23, 여 32), 팀당 5명(남녀혼성 필수)
- 지원자격: 농촌에 거주 중인 농업인(비농업인 포함) 또는 농업인 단체 회원
- 경진내용
 - 주요 농작업별 상황에 맞는 안전 보호구와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농작업복을 결합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쉬한 복장 경진
 - * 농작업별 편의장비나 농기구 등 관련 소품 활용 가능, 일부 의상은 협찬(워크업)
- 관련사진(예시)



□ **시상규모**

- 시상점수: 6점(금상1, 은상 2, 동상 3), 시상금 2,700천 원
- 심사기준: ①안전성 및 기능성, ②세련미 및 디자인, ③현장 적합성 및 수용도, ④무대연출 및 팀워크, ⑤독창성 및 표현력

□ **기대효과**

- 농작업 안전보호구 착용 문화 확산 및 농작업 재해 예방 인식 제고